

엑소 레이·NCT 127 마이클 잭슨 헌정 프로젝트 참여

그룹 엑소의 멤버 레이와 그룹 NCT 127(사진)가 마이클 잭슨 탄생 6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아시아 대표 가수로 참여한다.



지난 29일 미국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는 “제이슨 데룰로(Jason Derulo)·NCT 127·엑소 레이가 마이클 잭슨 헌정 싱글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앞으로 10개월 간 769 엔터테인먼트는 팝의 제왕을 기리기 위해 4개의 싱글을 공개할 것이다.”라며 “첫 번째 곡인 ‘렛츠 셋 업 앤 댄스(Let’s Shut Up and Dance)’는 제이슨 데룰로와 K팝 밴드 NCT 127, 엑소의 레

이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레이와 NCT 127은 그래미상 수상자인 뮤직비디오 감독 데이브 마이어스가 연출하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잭슨 레코드사 MJJ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제리 L. 그린버그는 “마이클 잭슨은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져왔다.”라며 “우리의 희망은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는 것이며 잭슨을 축하하고 그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수 김태우, ‘모델 계약 위반’으로 배상



가수 김태우(37, 사진)가 모델 계약 위반으로 업체에 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체중관리 업체 주비스가 김 씨와 김 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델료 절반인 6,500만 원을 소속사가 배상하라고 16일 판결했다.

앞서 주비스는 지난 2015년 9월 광고대행사 J사를 통해 김 씨와 1억3,000만 원의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했다. 김 씨는 이 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약 8개월 후인 2016년 4월 목표체중(85kg)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주비스는 광고 마케팅에 김 씨 사례를 활용하면서 김 씨에게 한 달에 12차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방송 일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몸무게가 목표 체중에서 10kg 이상(95.42kg)으로 늘어났다. 양측의 계약 조건에는 계약기간 1년 동안 목표체중에서 3kg이상 증가한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목표 체중에 성공했음에도 계약기간 내인 2016년 5월부터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관리를 받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며 “김 씨가 이전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측도 광고효과를 얻었다.”면서 “모델료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과다하고 절반이 타당하다”고 금액 이유를 전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원한 하숙생’ 최희준 별세



원로가수 최희준(본명 최성준)이 지난 2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36년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태어난 최희준은 1960년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로 데뷔해 ‘진고개 신사’, ‘맨발의 청춘’, ‘하숙생’, ‘길잃은 철새’, ‘팔도강산’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그는 1950년대 후반 미8군 무대에 서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유의 허스키한 저음이 매력적이던 그는 작곡가 손석우를 만나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 말까지 매년 방송사 10대 가수에 오르며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1965에는 인생의 덧없음이 시적인 노랫말에 담긴 ‘하숙생’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트로트가 유행하던 시절 스윙 재즈 풍 노래와 팝 발라드로 당시 젊은층 인기를 끌었다.

1996년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가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다.

122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7에 있습니다)

5	6			9		2	3
				1	4	8	
		6	2				5
3			9			1	
		1	5	3			2
				4			
6	5		7			2	4
		3				7	
4		7		1	5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